

다산포럼



김세종
다산연구소장

다산의 ‘악경’ 복원과 고악의 회복

樂 즉 ‘악경(樂經)’을 복원한 것이다. ‘악경’은 사람이 항상 좇아야 할 도리를 가리킨 6경 중의 하나이다. 6경은 공자가 13년을 온 세상 곳곳을 두루 유람하고, 고향 노나라로 돌아와 제자들에게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 6예(藝)를 가르치고, ‘시경’ ‘서경’ ‘예기’를 손질하고, ‘악경’을 바로잡고, ‘춘추’를 저작하고, ‘역경’을 덧붙여 6경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런데 ‘악경’은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경서를 불태운 분서(焚書) 이후, 학자들이 구멍이에 생매장시킨 경유(坑儒) 때에 잃어버렸다. 뒷날 후한의 정현(鄭玄, 127~200) 등에 의하여 방대한 주석과 고증 작업으로 그나마 5경(五經)은 회복하였으나, 끝내 ‘악경’만은 부흥되지 못한 채 옛 경전 속에서 편린(片鱗)으로써 살필 수 없는 경이 되어 버렸다. 다산은 이러한 ‘악경’의 망실을 지극히 애석하게 여겼다. 요순시절 덕치를 펼치던 그 중심에 음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았고, 예악사상으로 점철된 공자맹자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가를 꿰뚫고 있었다.

다산은 짤막한 ‘악론’ 2편에서 “음악의

망실이 성인의 도를 어렵게 하였으며, 3대 성인의 정치를 잃어버리게 했다. 성인의 도는 음악이 아니면 행해지지 못하며, 제왕의 정치는 음악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하며, 천지만물의 정(情)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3대 이후에 오직 음악만이 완전히 망실하여 백세 동안 훌륭한 정치가 없었고, 사해(四海)에 착한 풍속이 없는 것은 모두 음악이 망실되었기 때문일 뿐이다”라고 지극히 애석하게 여기며, 당시 암울하고 혼탁한 사회 현상을 짚어 냈다.

강진 유배 시절에 편찬한 ‘악서고존’(樂書孤存)의 서문에는 음악에 대한 애착과 편찬 당시 병마에 시달린 가슴 뭉클한 사연이 전한다. 알다시피 다산은 1801년 겨울 강진에 유배되어 18년 남짓 귀양살이를 했다. 이중 다산의 10년 초당 생활은 오늘날 다산학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는데, ‘악서고존’ 또한 1816년(순조16) 55세 봄, 다산초당에서 완성된다. ‘악서고존’ 서문에는 “다산초당이 머무는 때에 다리가 붓고, 근육이 땅겨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한 상황에서 고악이 이미 망실하고 선성(先聖)의 도가 어두워졌으니 분변하지 않을 수 없

다”는 내용이 전한다. 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 스승이 부르면 글씨를 잘 쓰는 제자 이칭(李晴)이 밤이 적어 가며 책명을 ‘악서고존’이라 했는데, 이는 ‘한·당나라 이후 수많은 거짓 악서보다 이 외를 게 전하는 악서가 더 낫다’는 뜻으로, ‘악서고존’에 대한 가슴 뭉클한 사연과 함께 그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다.

실로 다산은 ‘악경’의 복원과 고악의 회복은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주도한 정조대왕의 말씀처럼, “지존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공부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첫째는 고전을 통해 진리를 배우는 일이며, 둘째는 탐구를 통해 문제를 밝히는 일이며, 셋째는 호방하고 힘찬 문장 솜씨로 지혜롭고 빼어난 글을 써낸 이것이야말로 우주 사이의 세 가지 통쾌한 일이다”고 한 것에 비유될 만하다. 다산이 동아시아 음악학자들이 악을 이론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니, 그의 악학 이해에 대한 수리적 창의성과 독창적 경전 해석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NGO칼럼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 광주시교육청에 원죄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별 감사 결과 부정 현수막은 모든 학생들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을 것인데, 오히려 학교는 ‘광주 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 조작 사실이만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강경한 현수막 문구로 광주시교육청의 정당한 행정 행위를 월권으로 뒤바꾸 설명하고 있다.

고려고는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 과정 및 학업 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성적 우수자만 특혜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혜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5년 성적 우수자만을 편성해 자율 학습 때 넓은 책상 등 최선식 시설 제공하였으며, 2017년 기숙사 입사자에게 교내 전용 공간에서 야간 자율 학습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고려고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성적 우수자 특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전례가 여럿 있다.

이처럼 성적 우수자 관리는 각별한 시설 등 교육 환경 제공으로 특별 대접하는 정도도 인식되었지만, 이번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처럼 대학 입시의 공정성주의 심필 만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성적 우수

자 학생을 관리하는 경우는 광주에서 처음 밝혀진 일이다.

고려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는 이번 특별 감사 결과와 같은 학업 성적 관리·평가 및 성적 차별에 관한 문제 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지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를 저질렀음에도,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과정 위주로 수준별 운영하는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 전형적인 몰타기 여론을 만들고 있다.

물론 고려고 측 주장대로 특별 감사 결과는 어느 개별 교사의 일탈이며 관행적인 실수로 의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진행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이 몰랐다거나 매우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기에 이들은 교육자이자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는 학교 관리자 뿐만 아니라 광주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S여고 성적 조작, 지난해 D고교 시험지 유출 등 광주 관내 고등학교 성적 비리와 학업 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으나, 이번 고려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고, 수학 교사 등 일부 교사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고려고 관련 사건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리하였으며, 경찰의 자료 요청에 대해 교육청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들을 추가 고발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려고의 학급 수 감축 등 행·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방백제하고, 학업 성적 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일체로 근절하기 위한 광주시 내 고등학교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적법한 근거와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기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고광섭
해군과학기술학회장·목포해양대 교수

퀘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칠천량해전과 퀘벌된 조선 수군으로 세계사에 빛나는 불멸의 신화를 창조한 명량해전이다. 칠천량해전은 1597년 음력 7월 남해 칠천량 바다에서 원군이 이르는 조선 수군이 180여 척의 전선을 갖고도 패배한 해전이다. 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되었고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조선의 바다는 일본 수군의 안방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명량해전은 백의종군 중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 받은 이순신이 퀘벌된 조선 수군을 수습하여 확보한 13척의 전선으로 울돌목에서 10대 1로 우세한 일본 수군을 격파한 해전이었다. 불과 칠천량해전 패배 이후 2개월만의 승리로 서남해역의 제해권을 되찾은 불멸의 해전이었다.

180여 척 조선 수군의 전력을 갖고도 치욕적 패배를 한 해전과 불과 13척의 전선으로 극적인 불멸의 승리를 한 해전 전선으로 극적인 불멸의 승리를 한 해전 해전의 패배 요인은 무리한 공격, 장수의 리더십 부족 및 장수와 병사들의 결전 의지 결여와 도주 등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싸워야 할 주체인 장수

와 병사들의 결전 의지 결여와 도주였다.

실제로 해전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전투 중 전의를 상실하고 바다로 뛰어든거나 육지로 도망하였고, 심지어 원군의 장수였던 배설은 휘하 전선 및 병사들과 함께 도주하기도 했다. 이 해전을 두고 당시 군영 체계의 지휘관자인 이원익은 조선 수군은 처음부터 힘을 겨루어 싸우다 패한 것이 아니라 산 자나 죽은 자나 도망하기에 바빴다고 평했다.

명량해전의 경우 해전 전 조선 수군의 전력은 칠천량해전의 패잔병 및 일부 수습된 병사들과 전선 13척에 불과하였다. 오죽했으면 조선 수군이 퀘벌되었을 줄 알고 있는 선조가 “수군을 가지고 바다에서 싸울 수 없으면 육지로 올라와 육군과 같이 싸우라”고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을까. 이에 대해 이순신 장군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고 명량수군에서 결전에 임하였고, 적보다 턱없이 열세한 전선과 병력으로 전투에 임

하여 승리를 했다. 이 두 해전 승패의 결정적 요인은 ‘왜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등 해전에 임하는 장수와 병사들의 결전 의지였다.

세계화 시대에 정상적인 국제 관계는 신뢰와 상호 존중 가운데 이루어진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신뢰와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불행했던 과거사를 안고 있는 한일 관계는 더욱 신중해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조치는 정상적인 국제 관계의 한계를 넘어 경제 전면전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한일 양국 간의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우선적으로 보여 줄 때라 생각한다.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것처럼 상대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학습 효과는 더 어려운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420여 년 전 명량해전과 칠천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에 맞서 싸웠던 조선 수군이 보여준 대조적인 결전의 의지의 결과와 남긴 교훈은 여전히 현재도 유효하지 않을가.

社說

‘꿈의 빛’ 방사광가속기 이번엔 꼭 유치될

전남도가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해 한전공대 성공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엇그제 나주 한전공대 인근 80만㎡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 3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서울에서 출범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한전공대와 연계한 최첨단 방사광 가속기 구축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 및 기술 자문을 하게 된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만든 ‘꿈의 빛’으로 물질의 미세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첨단 연구시설이다. 화학, 생물, 반도체, 의학 등 기초 연구는 물론 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첨단 과학 분야에 폭넓게 활용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중이온 가속기,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나섰으나 대전과 포항에 밀린 바 있다. 또한 양성자·중이온·중입자 가속기가 광주·대전·부산에 각각 설치됐지만 호남권에는 가속기가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가 설치하려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포항의 3세대보다 방사광의 밝기와 크기가 100~1000배 뛰어나고 50개 이상의 실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전공대 인근에 이 가속기가 구축되면 국내외 유명 연구진 유치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전북대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호남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지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가속기 유치에는 이미 충북 등이 뛰어난 상태여서 전남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호남권에 가속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도 전남 유치를 위해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문화 예술인 지원도 수도권 편향이라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 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이 서울·경기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어 지방의 문화 예술인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모사업 전체 선정 건수 2683건 중 71.9%인 1929건이 서울(1541건, 57.4%)과 경기(388건, 14.5%)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도 606억여 원 중 과반이 넘는 370억 원(61%)이 서울(296억800만 원, 48.8%)과 경기(73억9000만 원, 12.2%) 두 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대안정치연대)이 한국문화예술위로부터 받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현재 기준 서울 53.3%, 경기 14.6%로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단체)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전남의 경우 경북·충남 등과 함께 고작 1%대에 그쳤으며 광주 역시 전북·충북·경남 등과 함께 2%대에 머물렀다. 이는 공연 예술 분야 공연단체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에 57.8%가 집중되어 있고 등록 예술인도 두 지역이 6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역 편차는 해소돼야 마땅하다. 문화 예술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역량이 우수한 지방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받아서 안 된다. 또한 공모사업의 일정 비율을 지역에 배분함으로써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의 지적대로 문화 예술 분야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별로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無等鼓

“끓임없이 내 길이 맞을까 여러분과 똑 같이 고민했습니다. 서른살이 되던 해, 탈출하기로 맘먹고 무작정 ‘섹스 앤드 더 시티’로 떠났습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90년대생은 잘 몰라요. (웃음)

지난 9월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 자리한 독립서점 ‘책과 생활’에서는 프랜차이즈 광고 전문가인 김진아 씨의 ‘북토크’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천 신형성을 한 20대 청년세대 36명이 서점 내 좌석을 가득 채운 채 그의 강연 내용에 귀를 기울

리고 페미니즘에 공감한다고 했다.

기자는 이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고심하는 청년세대의 현수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롤 모델’을 절실하게 찾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계에서 입지를 굳힌 김 씨는 그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하다 싶었다. 그는 최근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광고 문구를 쓰기도 했다.

돌아보면 청년세대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그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사회 지

도층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의 치부(恥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청년세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현 한국 사회는 ‘롤 모델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세대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 큰 산에 오르거나 폭풍우를 뚫고 대양으로 나아가려 할 때, ‘등대’나 ‘나침반’ 역할을 해 줄 롤 모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송기료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